용감한 집배원 불길 속 노인 구했다

광주우체국 산수동 담당 김종운씨
우편물 배달 도중 주택 화재 발견
"저집 주인은 거동 못하는데…" 뛰어들어

'1분만 늦었더라도….'

29일 오후 2시30분 평소처럼 주택가를 돌며 편지를 전하던 광주우체국 소속 집배원 김종운(30·사진)씨가 산수동 주택가를 지날 무렵 예기치않은 상황에 맞닥뜨렸다. 한 주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가 싶더니 가까이 다가가자 이내 불길이 활활 치솟고 있었다.

오전 일을 마치고 동료들과 함께 늦은 점심을 먹으려던 김씨는 냅다 자신이 타고왔던 배달 오토바이를 담벼락에 댄 뒤 어른 키만한 담벼락을 넘어 집안으로 들어갔다.

산수동 일대를 2년 가까이 담당하고 있는 김씨는 해당 구역 대부분이 일반 주택인지라 각 가정의 상황을 비교적 세세히 알고 있었다. 이 때문에 직감적으로 화재가 난 집의 중풍환자 A(66)씨가 뇌리를 스쳤고, 거동이 어렵다는 생각에 앞뒤 가리지 않고 불길로 뛰어든 것이다. 구조하는 동안 얼굴이 뜨겁고 무서웠지만 A씨의 무사한 모습을 보고 기뻤다며 김씨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119 구급대가 채 도착하지 않은 상황인데다 구조가 1분만 늦었어도 A씨의 생명은 위태로웠던 상황이었다.

김씨가 담을 넘었을 때, A씨는 이미 온 몸에 화상을 입어 살갗이 벗겨진 채로 문 앞에 쓰러져 있었다. 김씨가 치솟는 불길을 헤치고 A씨에게 다가가자마자 거실에 있던 TV가 불길에 '펑'소리를 내며 터졌다. 김씨는 A씨의 몸을 조심스레 안아 화재 현장을 빠져나왔다. 때마침 출동한 119 구급차에 A씨를 인계했고,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일련의 상황은 김씨가 현장에 도착한 지 1분도 안된 짧은 시간에 벌어진 것이다.

김씨는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평소 A씨의 집에 등기를 배달하러 자주 갔었고, 몸이 불편한 분이란 것을 알고 있어 곧바로 뛰어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날 불로 A씨의 집 60㎡가 전소됐다.

김씨가 광주우체국에 입사한 것은 3년 전인 2008년. 담당구역을 산수동으로 배정받은 것은 1년 6개월 됐다. 김씨는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 평균 7시간 동안 일대를 돌며 편지와 소포, 등기를 배달했고, 산수동 주택가 구석구석을 잘 알고 있었다. 중풍을 앓고 있던 A씨는 후천성 장애 1급. 김씨가 방문할 때면 항상 집안에 누워있었고, 김씨는 "괜찮으세요?"라며 안부인사를 건네곤 했다. 인근 주민들의 김씨에 대한 칭찬은 자자했다. 평소 찾는 사람이 없는 독거노인들에겐 매일 우편물 배달을 위해 이 일대를 도는 김씨는 말동무 친구이자 고민을 해결해주는 상담원이었기 때문이다.

평소 행복재활원에서 중풍 장애인들을 돌보며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김씨는 "불이 나는 것을 직접 보면 누구나 그냥 지나치지는 못했을 것"이라며 "큰 도움을 드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29일 오후 2시30분께 광주시 동구 산수동 한 집에서 불이나 A씨가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전소된 A씨의 집이 당시 급박했던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도로 빗물 유입구 덮개 절도 극성

진월·대촌동서 잇단 도난
어린이 빠지면 생명 위험

전국이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든 가운데 광주에서 빗물 유입구 덮개 절도가 극성을 부려 관할 구청에 비상이 걸렸다.

29일 광주시 남구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남구 진월동과 대촌동 일대 도로변의 빗물 유입구 덮개 10여개를 잇따라 도난당했다.

가로 50㎝·세로 40㎝ 크기의 빗물 유입구 덮개는 도로변과 인도의 경계에 설치, 비교적 큰 오염물이 빗물과 함께 하수구로 유입되는 것과 악취를 막기 위해 설치돼 있다.

남구는 개당 가격이 5만원 상당인 빗물 유입구 덮개가 주철로 만들어져 있는 점을 토대로 고물상 판매를 목적으로 한 절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체구가 작은 어린이들의 경우 덮개가 설치되지 않은 빗물 유입구에 빠져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광주고법, 선재성 부장판사 징계 청구

광주고법은 29일 부적절한 법정관리로 기소된 선재성(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부장판사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

광주고법은 선 부장판사가 광주지법 파산부 재판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부 행위가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고 법관의 품위 손상,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것으로 판단, 이같이 청구했다.

대법원은 선 부장판사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보낸 뒤 징계 심의를 하게 되며 징계 유형은 정직, 감봉, 견책, 불문, 무혐의 등으로 징계 청구 60일(30일 연장 가능) 안에 결정된다.

선 부장판사는 광주지법 파산부 재판장 시절 법정관리 사건 대리인으로 고교 동창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이 변호사로부터 얻은 정보를 이용해 투자 수익을 남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 첫 공판은 다음달 4일 열린다.

선 부장판사는 6개월 휴직을 청원했으며 대법원은 다음 달 1일 자로 선 부장판사를 사법연수원으로 전보하고 휴직하도록 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고수익 보장"12억 가로챈 부동산투자회사 대표 구속

광주동부경찰은 29일 부동산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아 수십억원을 가로챈 광주 모 투자회사 대표 정모(55)씨를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월 20일 투자업체로 찾아온 이모(65)씨에게 "매달 투자 원금의 3%에 달하는 이익금을 지급한다"며 속여 1억원을 받아챙기는 등 지난 2009년 9월부터 최근까지 투자자 30명으로부터 모두 1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지난 2009년부터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부동산 투자업체를 운영하며 "여수 돌산2교 부근 땅을 샀는데, 2012 여수세계박람회로 여수 지역 땅값이 오른다"고 말해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투자자들이 대부분 주부나 노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양수현기자 yang@

축구 국가대표 출신 최성국
광주 상무시절 승부조작 모의

축구연맹, 자진신고

축구 국가대표팀 공격수로 활약했던 최성국(28·수원·사진)이 지난해 프로축구 K리그 경기에서 벌어진 승부조작에 관여했다고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자진신고했다.

프로축구연맹의 한 관계자는 29일 "최성국이 어제 승부조작에 관여한 사실을 자진신고했다"며 "곧바로 승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으로 가 조사를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성국이 먼저 구속된 김동현(상주 상무)이 부탁해 어쩔 수 없이 승부조작에 관여는 했지만 금품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최성국은 광주 상무에 뛸 때인 지난해 6월2일의 포스코컵 광주-성남전(1-1 무승부)과 6월6일의 정규리그 광주-울산전(울산 2-0승)에서 이뤄진 승부조작을 사전모의하는 모임에 참석했다.

이에 대해 최성국은 검찰에서 당시 모임에 갔지만 김동현이 건네준 돈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창원지검은 지난해 러시앤캐시컵 경기 외에 여러 건의 정규리그 경기에서도 승부조작이 벌어진 혐의를 잡고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프로축구 승부조작 의혹을 둘러싼 파문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합뉴스

차 대신 골프채라도…

훔친 승용차 기름 떨어지자 트렁크 털어 가다 덜미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고급 승용차를 훔쳐 탄 10대가 '감당도 못 할 물건'까지 욕심냈다가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에 사는 홍모(18·무직)군. 지난 10일 새벽 집으로 향하던 홍군은 우연히 자신의 아파트단지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박모(34)씨의 렉스턴 승용차를 발견했다.

박씨의 차량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 당긴 홍군은 문이 열리자 일단 내비게이션을 뜯어 챙겼다. 또 콘솔박스를 뒤져 또 다른 차량 리모컨 키 1개도 주머니에 담았다. 박씨 부인의 그랜저 승용차 열쇠였다.

리모컨 키의 경보 버튼을 눌러 인근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찾은 홍군은 시동을 건 뒤 동이 틀 때까지 광주 곳곳을 누비며 드라이브를 즐겼다. 정신없이 드라이브를 한 홍군은 이날 오전 7시30분께 광산구 수완지구 한 대로변에서 기름이 바닥나자 승용차를 세운 뒤 안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와 골프 가방까지 훔쳤다.

훔친 골프 가방을 한쪽 어깨에 메고, 양손에 모니터와 내비게이션까지 든 홍군은 수완지구 일대를 무려 4시간 동안 걸어다녔다. 수완지구 지리에 어두운 데다가 수중에 돈이 한푼도 없었기 때문.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수완지구 일대를 배회하던 홍군은 곳곳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모습이 찍히면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은 29일 주차돼있던 승용차와 차량 안에 보관돼있던 물건을 훔친 홍군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폐휴대폰 분리로 환경오염 방지 광주시 북구 자원재활용 담당 직원들이 29일 북구 재활용 선별센터에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 방지를 위해 수거된 폐휴대폰 분리작업을 하고 있다. 현재 6000개 정도 수거한 폐휴대폰 판매수익금은 전액 불우이웃돕기에 쓰일 계획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농촌 돌며 전선 상습 절도

군산경찰, 40대 2명 구속

군산경찰은 29일 농촌지역을 돌며 전선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이모(49)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 전선을 구입한 혐의(장물취득)로 고물상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친구 사이인 이들은 2월4일 새벽 1시께 정읍시 신태인의 한 전봇대에 올라가 한전이 관리하는 구리전선 300m(시가 210만원 상당)를 잘라 훔치는 등 최근까지 전북 농촌지역을 돌며 50차례에 걸쳐 1억원 상당의 전선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잇다. 조사 결과 이씨 등은 훔친 전선을 kg당 8300원을 받고 고물상에 판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회삿돈 1억여원 횡령

여수경찰, 40대 구속

여수경찰은 29일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횡령)로 여수 모 플라스틱 제조회사 전 재무팀장 A(4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허위 물품 구매 계산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총 7차례에 걸쳐 회삿돈 1억 27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회사 경영진이 바뀌는 어수선한 틈을 타 범행을 저질렀으며 횡령한 돈은 개인 빚을 갚거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부취재본부=김창화기자 chkim@

"뒷모습 섹시해" 길가던 여성 껴안아

쌍나팔

○…몸에 딱 붙는 민소매 티셔츠와 스키니 바지를 입고 길을 걷던 여성의 뒷모습에 홀딱 반해 뒤따라가 껴안은 30대 남성이 경찰서행.

○…29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김모(38)씨는 지난 24일 밤 8시15분께 광주시 동구 불로동 모 상점 앞길에서 회사원 A(여·25)씨를 뒤에서 안고 몸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고 도망갔다는 것.

○…경찰은 CC-TV에 찍힌 범행장면과 "막걸리 냄새가 났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인근 술집을 탐문해 김씨를 붙잡았는데, 경찰에서 김씨는 "긴 생머리에 섹시한 A씨의 모습에 나도 모르게 따라가 안았다"고 진술.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 14만 합격자가 말한다 ★★★
2012 학년도 대학편입은 김영과 함께
상위권 대학편입대비, 자타공인 대한민국 No.1
편입영어(이론과정/문제풀이)
자연계열 편입합격의 열쇠, 지방 유일 실강의!
편입수학(미,적분과정/선형대수)
전남대 편입 Hot Point!, 전남대 맞춤형 Teps-
Teps大개강(Teps+면접대비)
편입합격자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김영편입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뒤 (062) 227-8088
www.kimyoung.co.kr 개강 : 7월 1일